

‘불법 촬영 꼼짝마’...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중 화장실 점검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3.08.04 17:32



평창자연휴양림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계방산 오토캠핑장 등 9곳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등 안전 점검에 나섰다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맞아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공중화장실·샤워장·휴게실을 찾아 전파탐지기로 불법 카메라·잠금장치·비상벨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박현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점차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전 예방 활동과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한 만큼 이용객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